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이주경 고신대 박사수료

ABSTRACT

This paper is an exploratory study on what to design the program with the focus before planning a media literacy parental education program. As the number of media users increases, the amount of time spent using media is also increasing. In social media, short-form content has emerged rapidly, and as more platforms have developed to be centered on consumer convenience, media users can use the media shorter through more diverse platforms, and there is a risk of despair and anxiety as values and actions formed biased by distorted information and algorithms become a habit of negative values and actions to media users in that they can participate immediately,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social media. In fact, as the use of social media increases, it has been revealed that emotional anxiety and depression appear as side effects that users are experiencing. In the era of radical media development, the side effects of uneducated media usage life appear as a serious social phenomenon. Media literacy refers to the ability to discern media as critical thinking along with the ability to use, understand, and create it. In addition to reflective thinking, the concept of critical thinking emphasizes the process of thinking. As such, media literacy has not only a functional aspect of learning how to use media, but also an educational aspect of learning how to think. Values education can be done in public education or in a formal environment, but more effective is education in an informal learning environment at home. James Fowler defines faith as a worldview that learns and interprets the world about the meaning, values, and purposes of human life. We see the world through the media. The direction and values of media change depending on who the provider and producer are. Moreover, among the media education currently being conducted, research on media literacy parental education based on Christian culture has hardly been conducted.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edia literacy program that has cultivated critical competencies to teach the right values.

Key Words: media literacy, media literacy competency, worldview, parent education

I. 서론

2023년 초 세계인구는 80억명에 도달했고, 전 세계 인구 60% 이상이 SNS를 사용하는 시대가 왔다(Kepios, 2023).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기준 55.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KISDI, 2022). 이에 따라 SNS가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활용도와 영향력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정일권, 유경한, 2016). 소셜미디어 이용자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 조너선 하이트와 그레그 루키아노프(2018)는 미국 젊은 세대에게서 불안증, 우울증, 자살의 문제가 훌쩍 늘어났고, 수많은 대학의 문화가 이념적으로 더욱 획일화 되고,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의 열성과 당파심을 이용해 ‘가해자 지목 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환경에서 극단주의자들과 사이버 트롤들이 더욱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증폭시킨다고 이야기 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보도자료에 따르면 21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은 2.1배, 불안장애는 1.6배 많으며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모두 20대 환자가 각각 127.1%, 86.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또한 18~70세 Facebook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SNS에 시간을 많이 사용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van, Gomez & Sparks, 2014). 소셜미디어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부작용으로 지나치게 타인의 반응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이버불링이 보다 손쉽게 행해지는 반면, 보호자가 파악하기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태의 심각성이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상률, 고은혜, 2015).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우울증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셜미디어와 우울증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울 관련 요소 중 낮은 자아상과 자아 정체성, 자기 객관화, 신체 수치심, 다이어트 등 사회적 비교의 요소들과 연관지어 입증했다(McCrae, Gettings & Purssell 2017).

급진적인 미디어 발전 시대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정보에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처 교육되지 못한 미디어 사용 생활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들에게 교육되었어야 하는 내용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더 커질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배우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이 일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백은미(2018)는 미디어의 폭력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공격성이나 폭력성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사실에 대해 부모와 자녀에게 있어서 자기 이해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성찰, 올바른 표현역량을 배움과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삶의 의미와 지향성을 형성하도록 돕고, 가정을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미디어리터러시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미디어를 사용, 이해, 창조할 수 있는 역량과 함께 비판적인 사고로 분별하는 능력이다. 버킹엄(2019)은 미디어를 잘 읽고 잘 쓸 줄 아는 시민을 원한다면 필요한 것은 미디어 교육이며, 이것은 이용자의 미디어 사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미디어 메시지를 잘 해독해내는 역량 중 하나는 비판적인 이해라고 언급하였다. Barry K. Beyer는 “많은 학자들이 비판적 사고를 고차원적 단계의 사고로 인식하

거나 탐구력 또는 문제해결력으로 인식했다”고 지적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진술, 논증, 경험에 대해 평가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사고’로 정의했으며, 미국 철학협회의 비판적 사고에 대한 개념은 반성적 사고 외에 “사고의 과정성”을 강조했다. 비판적 사고는 계속 개선해 나가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적 사고’다(황치성, 2018).

미디어 리터러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디어를 선용하는 것이다. Baacke(1997)는 미디어 교육에 대해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교육적 사고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미디어 기술과 미디어 이론, 실증에 대한 규범적 토대를 포괄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의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미디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혜성, 2000 재인용). 이러한 미디어 교육학 연구를 위해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것이 미디어 선용역량(Medienkompetenz)의 개념으로서, 이는 미디어 교육의 교육목표가 된다.

정보통신기술과 뉴미디어의 발달로 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미디어를 접하게 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이러한 점에서 가정에서의 미디어교육, 정확하게는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3). 가정 내 미디어의 보유는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가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녀의 미디어 사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도하는가에 따라 자녀의 미디어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김지선, 이강이, 2019).

II. 미디어 리터러시 부모교육

1. 미디어와 기독교 세계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디지털 컨버전스가 나타나면서 미디어의 개념이 모호해졌다. 이를 지적한 이재현(2014)은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미디어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경험 중심적 레이어를 제시했다. 첫 번째 레이어인 미디어 기기(media device)는 미디어와 이용자와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접점을 이루는 책, 라디오, TV, 컴퓨터, 전화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레이어인 전송 네트워크(deliver network)는 콘텐츠 정보 또는 데이터를 공급자에게 받아 이용자에게 전달해주는 물리적 네트워크(physical network)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마이크로 웨이브, 케이블, 위성 등을 포함하는 방송용 네트워크, 공중전화망, 컴퓨터와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통신용 네트워크, 그리고 일반 상품이 전달되는 유통망(distribution network)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 레이어는 콘텐츠가 유통, 전송될 수 있도록 콘텐츠 수급 및 패키징을 담당하는 운영체계를 뜻하는 미디어 플랫폼(media platform)으로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통신, 인터넷, 영화, 음반 출판 배급 등을 포함한다. 네 번째 레이어는 내용을 어떻게 패키징할 것인가에 대한 콘텐츠 패키징(packaging), 마지막 레이어인 단위 콘텐츠(unit content)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구분 기준이

있다. 텍스트, 그림, 비디오, 음향, 멀티미디어로 구분 할 수 있는 미디어 양식과 개인 혹은 집단, 기관에서 생산해낸 콘텐츠 생산자에 따른 구분이 있다.

미디어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보고, 인간 간의 대면에서 사용되는 말과 같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나 표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미디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입과 몸도 미디어이며 결과적으로 인간 자체도 미디어임을 의미한다(박주현, 박성훈, 강봉숙, 2019).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영어 단어 media는 medium의 복수형이다. medium의 근대적 의미는 “중간, 중앙, 중재자”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으며 중간에 있는 어떤 것, 중재자를 의미한다. 미디어는 세 개의 상호 연관된 차원들 즉, 메시지, 수단, 동인(agents)으로 구성된 상징적인 연결체이다. 모든 미디어는 무엇과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누구에게의 개념을 갖는데, 이 개념들은 각각 기호내용, 전달 장치, 저자(authors)와 청자로 정제해서 표현한다. 이 표현들을 정보이론의 언어로는 메시지(message), 경로(channel), 송신자와 수신자(senders and receivers)로 쓰인다(Mitchell, Hansen, 2015). 커뮤니케이션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헤럴드 라스웰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해 ‘누가(who), 무엇을(says what), 어떤 경로로(in which channel), 누구에게(to whom), 어떤 효과로(with what effect)’라는 5단계로 제시했다(오미영, 2013). 이것은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인 S-M-C-R-E의 개념인데 송신자(Sender)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Message)를 적절한 수단인 경로(Channel)를 통해 수신자(Receiver)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며 송신자가 전달한 메시지를 의도에 맞게 잘 전달 되었는가(Effect) 평가하는 모델이다, 이는 미디어의 전달 경로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캐나다의 영문학자이자 미디어 이론가인 마셜 매클루언(1964)은 매체가 전달되는 메시지에 스며들어 공생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매체의 소비자로 하여금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그의 저서 미디어의 이해에서 “미디어는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고 정의했다.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을 인간의 보편적 관심 영역, 즉 인간이 삶의 의미, 가치, 목적에 대해 세상을 배우고 해석하는 세계관으로 정의한다. 파울러에게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여정이며,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념과 명제를 연구하는 여정을 동반한다(신형섭, 2021). 헤르만도예베르트의 저서 “법철학”의 해설판을 쓴 Spier는 철학하는 행위는 사유에 종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언약 안에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업무에 속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수여하신 문화명령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Spier, 1966). 인간의 사유가 의미있음은, 사유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 사유의 기준, 또는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사유 그 자체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인간의 지적인 모든 활동은 위험할 뿐이다(문석호, 1994). Kraft(2005)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재해석하여 그를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하고, 이것을 생활습관으로 삼아야한다고 설명한다.

2.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연구들의 특징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이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문화

및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가변성을 지닌다는 점이다(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7). 텔레비전 시대에 영상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해독 능력이 중요했다면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을 거쳐 소셜 미디어 시대에 이르러서는 미디어에 대한 활용과 비판적 이해, 자기 표현 능력을 넘어 민주적 소통을 위한 규범 준수, 상이한 의견에 대한 관용의 태도, 타인을 고려한 의견제시 등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으로 포함되었다(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2). 여기에 더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부상하면서 가짜현실을 통한 지식의 재구성이나 체험에 기반한 공감 능력 등이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만큼,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만큼이나 역동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7). 이렇듯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와는 달리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해야하고 교육 참여자들이 어떠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김아미, 2015).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진행된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인식의 전문가 집단 간 동질성과 차별성 연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중 비판적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 이용기술 능력이나 도구적 활용 능력, 미디어 제작 능력은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의 제작기술 중심 미디어교육이 비판적 이해의 영역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안정임, 김양은, 전경란, 최진호, 2017). 미디어 역량은 기술 개발과 성찰적 교양을 통합한 역량으로서 그 목표는 합리적 인간상과 성숙, 그리고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숙련에 있다(강진숙 외, 2019).

영국의 방송 규제 기관인 오프컴(The Office of Communications)은 미디어리터러시는 접근, 이해, 커뮤니케이션 창조 역량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했으며. 미국의 미디어리터러시 비영리 공익 단체인 CML(Citizens for Media Literacy)는 접근, 분석, 평가, 표현 및 창조, 참여를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으로 제시했다. 유럽 시청자권익위원회 EAVI(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는 미디어 맥락, 미디어 가용성, 이용, 비판적 이해, 소통으로 설정하였다. 켄킨스(2006)는 참여를 미디어리터러시 핵심역량이라고 보았고, 버킹엄(2019)은 직접 경험 외에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경험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 역량을 크게 강조했다. 국내 연구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연구를 살펴보자면, 강진숙 등(2019)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구성, 제작, 비평하며, 능동적으로 혁신적으로 이용 및 참여하는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백은미(2018)는 청소년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토대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조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

3. 미디어 리터러시 부모교육 관련 연구 동향

스마트기기 최초 사용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다고 나타났다. 즉, 아이를 달래기 위해,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에게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영유아용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부모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했다(오주현, 박용완, 2019). 부모가 자

녀에게 미디어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된 이유는 자녀의 잘못된 미디어 사용을 막기 위함에 있었다(최윤정, 이종혁, 2021; 이재순, 이유미, 2022; 김창숙, 최윤정, 2023). 이에 주로 사용되던 연구 방법은 부모의 미디어 중재행위가 자녀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였다. 중재 행위 관련 상당 수의 결론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 자녀간 유대관계(배상률, 이창호, 이정림, 2020; 이은순, 김은진, 2021; 정현선, 조병영, 권은선, 김광희, 2021), 대화가 중요하다(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3; 김수정, 2016; 김지선, 이강이, 2019)는 결론이었으며, 특히 부모의 미디어 사용 습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배상률, 이창호, 이정림, 2020). 또한 부모 중재에 있어서 자녀의 반발심에 따라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받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김형지, 정세훈, 2015). 즉, 부모가 가하는 직접적인 규제 행동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노출되는 간접적 미디어 습관, 생활이 자녀의 미디어 교육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하형석, 2019; 배상률, 이창호, 이정림, 2020; 이해선, 2021).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을 구성해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복잡해지는 미디어 환경에 적용 가능한 비형식 학습 환경에서의 중재 전략이 연구되고 있다(최정윤, 김현진, 2023). 또한, 부모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에 따라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수준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이채진, 이영신, 2021; 김지선, 2019; 윤보람, 이영신, 2020). 한편, 기독교 미디어 리터러시 부모교육 관련 연구에서 자녀 앞에서 모바일 기기 사용 빈도, 자녀 앞에서 사용할 시 대처 행동, 주의 환기를 위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다는 문항에서 비기독교 부모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현은자, 김태영, 조메리명희, 박은미, 2011). 백은미(2018)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하나님 이해와 자기 이해, 감정과 욕구, 삶의 의미와 지향성, 가정과 사회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중재 전략이 제시된 기독교 미디어 리터러시 부모교육 프로그램연구는 미흡하다.

III.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성

미디어 리터러시 부모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성은 첫째, 부모-자녀간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배상률, 이창호, 이정림(2020)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디어에 대해 친구와 소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즐거움과 재미를 만끽하게 해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구에서 시행한 미디어 다이어리 작성을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미디어 이용을 되돌아보게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심층 면접 조사결과 미디어 이용시간 및 이용 행태는 부모-자녀간의 유대감과 자녀의 오프라인 활동 수준에 크게 영향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은순, 김은진(2021)은 유아동의 미디어 심리적 과의존 경향은 양육태도 및 중재행위와 더불어 주 양육자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미디어 시간적 과의존은 부모의 규율적인 양육태도와 미디어 시간중재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현선, 조병영, 권은선, 김광희(2021)는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중심 소셜리빙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

녀의 미디어 이용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미디어에 대한 소통 태도가 변화되었으며, 미디어 이용자로서 자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중재 방식과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자녀가 이용하는 미디어에 대해 대화를 통해 이해함으로써 자녀의 시선에서 어떻게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이해하고 중재 방식이 청소년 자녀 입장에서 강압적이지 않게 변화했다. 둘째, 직접적 규제보다 간접적이고 구체적인 중재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하형석(2019)은 아동, 청소년은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가장 미시적 단계의 환경은 가정이라고 언급하며, TV, 스마트폰, 게임 모두 부모의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이용시간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미디어 이용제한 유무보다는 부모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디어 이용제한과 같은 규제에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보다는 부모 자신이 미디어 이용행동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받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다. 미디어 교육의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생활 속에서 습관화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중재전략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비행식 학습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개발을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녀 뿐만 아니라 부모의 미디어를 둘러싼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구되어 나와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비판적 사고를 위한 질문들에 다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다시 질문하는 체계적 작업과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Kellner(2019)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해체하는 과정의 시작이며 비판적 사고는 과정적 사고다” 라고 비판적 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개념적 이해	질문	재구성
1. 사회구성주의 모든 정보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선택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구성된다	미디어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선택의 주체는 누구인가?	
2. 언어/기호학 모든 미디어는 특정한 문법과 의미를 지닌 고유의 언어를 가진다.	미디어 텍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달되며,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가?	
3. 수용자/사회적 위치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개인과 집단은 미디어 메시지를 유사하게 혹은 다르게 이해한다.	수용자에 따라 미디어 텍스트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이해되는가?	
4. 재현의 정치학 미디어 메시지와 이를 전달	미디어가 텍스트를 통해 누락하거나 재현하는 가치, 관	

하는 매체는 언제나 편향성을 지니며 지배층의 권력, 특권, 즐거움의 지배적 위계질서를 두둔하거나 비판한다.	점,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5. 생산/제도 모든 미디어 텍스트는 종종 이윤이나 권력과 연관된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텍스트가 작동시키는 체제 혹은 제작자에 의해 실현된다.	미디어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정치적, 경제적 배경과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6. 사회환경적 정의 미디어 문화는 사람, 집단, 그리고 이슈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강화하거나 도전하는 투쟁의 장이다. 그것은 결코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	미디어 텍스트는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표1> Kellner & Share가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개념적 이해와 질문 재구성

Kraft(2005)의 기독교적 변혁적 변화를 위해서 문화의 개념적 범주들을 확장, 재정의, 교체하는 차원에서 전세계 수많은 학자와 기관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개념적 이해와 질문을 해체,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조성국과 이현민(2021)은 미래 사회 사람들의 사고에 반영된 세계관을 정리했는데, 종교화된 세속적 세계관, 구체적으로는 유물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종교화 되어,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과 구원의 능력을 밀어내고 인간의 신성을 주장하는데 이르는 반역적 형태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미디어 세상에 만연 해 있는 생각들은 인간의 권리가 1순위가 되었고, 개인의 자유와 절대 주권 요구가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반박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미디어를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많은 시간동안 사용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러한 가치관들에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앞서 설명한 미디어의 성격은 개인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디선가 송출되고 그 내용들이 내재화된다. 쏟아지는 콘텐츠들 속에 숨어 있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필터로 걸러낼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가치들이 내재화되는 것은 자연

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다. 타인에 대한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고 선으로 취급받는다. 실제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즉각적인 콘텐츠 수용과 창작이다. 이 점에서 왜곡된 정보와 편파적으로 형성된 가치관과 행동들이 매체 이용자인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된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가치관을 걸러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부모 역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을 걸러 낼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속에서 자란 자녀들 역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부족하다.

가정은 살면서 가치관을 배우기 가장 좋은 공동체다. 부모-자녀간 미디어 사용 생활을 객관적으로 서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간 미디어 사용 생활에 대한 관점이, 눈높이가 맞춰지는 것은 미디어 사용생활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상적 생활 모습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있을 온정적 대화를 통해 관계가 가까워 질 것을 기대한다. 기독교교육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기독교교육을 효과있게 함으로써 기독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은 자녀들이 기술의 성격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활용에 있어서도 탁월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조성국, 이현민, 2021). 니버의 생각처럼, 일반학문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성에 의해 인식된 가치들이고, 하나님과 동떨어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질서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의 발견과 그분을 통한 궁극적 계명의 수용 즉, 문화를 변혁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타락된 질서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고 자연의 명령들을 재해석하는 데 사용 될 것임을 믿는다(Niebuhr, 1951). 미디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여러 비판적 질문들과, 콘텐츠 창작을 포함한, 사랑이 최우선인 가정 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을 키우는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진숙 외 (2019).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시민역량 제고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김수정 (2016). 부모의 양육행동, 미디어 사용 유형,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의 구조관계. 육아정책연구, 10(1), 73-93.
- 김아미 (201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윤화 (2022). 세대별 SNS 이용 현황. KISDI STAT Report, 6.15, Vol.22-11.
- 김지선 (2019).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지선, 이강이 (2019).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40(6), 63-76.
- 김창숙, 최윤정 (2023). 부모 중재 유형이 유아의 영상 미디어 이용 조절과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젠더 & 문화, 38(3), 93-124.
- 김형지, 이세훈 (2015). 초등학교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중재, 학교교육 및 심리적 반발심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2(1), 87-120.
- 문혜성 (2000). 미디어 교육화의 이론적 배경으로서의 미디어 선용능력. 한국방송학보, 14(3), 47-79.
- 박주현, 박성훈, 강봉숙 (2019). 미디어 개념과 분류기준에 따른 미디어 종류 개발. 정보관리학회지, 36(3), 81-107.
- 배상률, 이창호, 이정립 (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은미 (2018).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기독교교육: 부모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6, 175-208.
- 신형섭. (2021). 신앙형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계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함의점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5, 163-187.
- 안정임, 김양은, 박상호, 임성원 (2009). 미디어교육 효과측정 모델: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개발. 서울: 한국언론재단.
-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2).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인 검증: 세대 간의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6), 129-176.
- _____ (2013).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인과 부모의 중재행위, 아동의 이

- 용조절 인식간의 상관관계. 언론과학연구, 13(2), 161-192.
- _____ (2017).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동향 분석: 연구특성 및 미디어 역할,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1(5), 5-49.
- 오미영 (2013).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 서울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주현, 박용완 (2019). **영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 실태 및, 부모 인식 분석**. 육아정책연구, 13(3), 3-26.
- 윤보람, 이영신 (2020). **어머니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40(6), 105-130.
- 이은순, 김은진 (2021). **키즈 유튜브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 부모의 물질주의 가치관, 양육태도, 미디어 중재행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57-58.
- 이재순, 이유미 (2022). **어머니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부모효능감이 유아기 자녀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연구, 14(3), 137-158.
- 이재현 (2014). **미디어 레이어: 이론화와 활용**. 언론정보연구, 51(2), 109-141.
- 이혜선 (2021). **자녀의 미디어 이용지도,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 공통 규칙 정하고 부모가 먼저 모범 보여야**.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dadoc.or.kr/2975>.
- 정일권, 유경한 (2016). **SNS 이용과 SNS에 대한 긍·부정적 인식의 관계**. 정보사회와 미디어, 17(3), 1-26.
- 조성국, 이현민 (2021).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이론』. 서울: 생명의 양식
- 최윤정, 이종혁 (2021). **부모 중재와 미디어 교육이 청소년 유튜브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학년에 따른 효과의 차이 분석**. 방송통신연구, 113, 141-171.
- 최정윤, 김현진 (2023). **비형식 학습 환경에서 자녀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개발을 위한 부모의 전략 탐색: 국내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9(1), 85-114.
- 하형석 (2019). **부모와 자녀의 미디어 이용, 그리고 미디어 이용제한**. KISDI STAT Report, 3. 15, Vol. 19-05.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현은자, 김태영, 조메리명희, 박은미 (2011). **가정에서의 디지털 모바일기기 사용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 신앙과 학문, 16(4), 245-266.
- 황치성 (2018). 『미디어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디지털 세상에서 자기주도적 삶과 학습을 위한 지침서』. 파주시: 교육과학사.
- Bevan, J. L., Gomez, R. & Sparks, L (2014). **"Disclosures about important life events on Facebook: Relationships with stress and quality of life"**, Computers in Human

- Behavior, 39, 246-253.
- Buckingham, D. (2019). *The media education manifesto*. UK: Polity Press.
- 조연하 외 역 (2019). 『미디어교육선언』. 조연하 외. 서울시: 학이시습.
- Kellner, D., Share, J. (2019). *The critical media literacy guide: engaging media and transforming education*.
- 여은호, 원숙경 역 (2022).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가이드: 참여, 소통, 그리고 미디어교육』. 서울: 살림터
- Jonathan Haidt, & Greg Lukianoff (2018). *The coddling of the american mind: How good intentions and bad ideas are set up a generation for failue*.
- 왕수민 역 (2019). 『나쁜교육: 덜 너그러운 세대와 편협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파주시: 프시케의 숲.
- Kraft, C. H. (2005). *Christianity in culture: A study in dynamic biblical theologiz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 임윤택, 김석환 역 (2006). 『기독교와 문화』. 서울: CLC.
- McCrae, N., Gettings, S. & Purssell, E. (2017), "**Social media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systematic review**", *Adolescent Research Review*, 2(4), 315-330.
- Mcluhan, H. M., (199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 김성기, 이한우 역 (2002).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서울시: 민음사.
- Niebuhr, H. R. (1951). *Christ and culture*.
- 홍병룡 역 (2007).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2022년 6월 24일 보도자료.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27#none>
- Spier, J. M. (1979).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 문석호 역 (1994). 『기독교 철학 개론』.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Citizen for Media Literacy. <https://www.main.nc.us/cml/>
- EAVI. <https://eavi.eu/media-literacy/>.
- Kepios Digital **2023: Global overview report**.
 (https://datareportal.com/reports/digital-2023-global-overview-report)
- Ofcom, (2023), Making sense of media annual plan.